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79-109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1

정규논문

한국판 성소수자 앨라이 척도(Korean version of LGBT Ally Identity Measure) 타당화*

고 현[1)**†] 김한석[2)**†] 이무진[3)**†] 이서영[4)**†]

[1)]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2)]충남대학교 교육학과
[3)]충북대학교 심리학과 [4)]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국내에 성소수자와 연대하며 공존을 실천하는 비성소수자인 앨라이의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앨라이 정체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원척도의 번역-역번역을 수행하였고, 번안된 척도의 문화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적합치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판 앨라이 정체성 척도(Korean version of Ally Identity Measure; K-AIM)는 지식-기술, 개방-지지, 억압 인지의 3요인 20문항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모형적합도(CFI = .959, TLI = .952, RMSEA = .054)와 내적합치도(α = .78~.92), 수렴 및 변별타당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실천적 지지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향후 성소수자 지지에 대한 교육, 앨라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소수자, 앨라이 정체성, 성소수자 앨라이 정체성 척도, 사회정의, 성소수자 친화적 태도

* 본 연구는 2022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앨라이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각 연구자는 본 논문의 공동 제1저자로 동등하게 기여하였으며,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공동 교신저자: 고 현, 김한석, 이무진, 이서영 (E-mail: theally.research@gmail.com)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울시는 성소수자를 보고 싶지 않아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였다(한겨레, 2023년 5월 12일). 같은 해 대구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시사저널, 2023년 6월 8일). 이러한 현상들은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일부 비성소수자들의 권리와 대립한다고 여겨지는 실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간의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데 앨라이(Ally) 집단이 갖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앨라이는 성소수자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 차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갖추고 있다(Fingerhut, 2011; Levesque, 201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앨라이는 성소수자 당사자가 겪는 소수자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성소수자가 교육,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Brooks & Edwards, 2009; Grundmann et al., 2020; Ho et al., 2023; Jones & Brewster, 2014; Meyer, 2003; Perales, 2020; Poynter & Tubbs, 2008). 더불어 Rostosky 외(2015)는 앨라이로서의 활동이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 증가, 정의 실천, 커뮤니티 소속감, 역할 모델 경험 등 8가지 긍정적 측면을 통해 앨라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 자아 효능감, 행복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앨라이들이 성소수자들과 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성소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국내 단체 및 기관들의 주도 하에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실천하는 앨라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는 성 상담가와 성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소수자 앨라이 교육을 개발하였으며 이들이 앨라이가 되어 성소수자 학생의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1년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 성소수자 앨라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21). 사단법인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는 I'm ALLY 사업을 통해 앨라이 정체성을 지닌 당사자들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자는 가시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사단법인비온뒤무지개재단, 2025).

서구에서는 한국에 앞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앨라이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 왔다(Feinstein & London, 2016; Montgomery & Stewart, 2012; Worthen & Lanza, 2023). 이러한 맥락에서 Jones와 동료(2014)들은 누군가 자신을 앨라이로 정체화한 정도를 ‘앨라이 정체성’으로 명명하고, 한 개인의 앨라이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Ally Identity Measure(AIM)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한편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 앨라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KCI와 DBpia를 활용하여 ‘앨라이’, ‘성소수자’, 혹은 ‘성소수자 지지자’ 등의 키워드로 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색된 논문 수는 3편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외에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진행되는 추세이지만(이소정, 김은하, 2022; 이주영 외, 2020; 이현지 외, 2021; 장미래, 송현주, 2021; 장지윤, 안현의, 2018), 앨라이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인의 앨라이 정체성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전무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즉 개인이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지의 간접적인 차원에서 측정되어왔다. 그 예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s Scale; ATLG,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Herek, 1988),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Scale; ARBS, 고현, 박혜경, 2023; Mohr & Rochlen, 1999),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척도(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TABS, 이현지 외, 2021; Kanamori et al., 2017) 등이 있다.

위 척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 개인의 인지와 태도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나,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에 개입하고자 행동하는 앨라이의 특성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AIM은 개방·지지, 지식·기술, 억압 인지의 3개 요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개인의 태도에서 사회적 실천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성소수자에 대해 개인이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졌는가에서 나아가, 자신의 편견을 성찰 및 해소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적극 대응하는 행동의 정도를 측정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권리를 대립하는 것으로 위치시키는 공적 담론이 반복되어 온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개인적 태도를 넘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개입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앨라이 정체성을 직접 포착하는 도구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또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ATLG의 경우,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자연스러움이나 도덕적 판단을 묻거나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성소수자를 비성소수자와 동등한 정체성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외적 존재'로 간주하며 그에 대한 평가·판단의 여지를 응답자에게 부여하는 관용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이 이성애 규범성에 기초한 관용적 태도는 성소수자를 수용하려는 긍정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주류 집단인 비성소수자의 인정과 배려의 차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순남, 2013; 박차민정, 2011; Brown, 2006; Herek, 1988).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척도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특정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괄적 태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활용되어 온 ATLG, ARBS 및 TABS는 각각의 집단에 초점화된 태도만을 측정하며 이들 집단을 넘어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태도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개별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인식 내지는 관용적 태도에서 나아가, 성소수자에게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태도에 대한 도구 및 연구가 필요하다(김미라, 2020; 박지훈, 이진, 2013; Brown, 2006). 이에 본 연구는 AIM의 번안 및 타당화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지지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실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태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앨라이 정체성

최근 연구자들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앨라이 정체성이 단순한 호의적 태도를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체성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Bishop, 2002; Broido, 2000; Evans & Wall, 1991). 이들은 앨라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지식(knowledge), 억압 인지(awareness), 기술과 자신감(skills and confidence), 실천(action)을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고정된 위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고 본다(Bishop, 2002; Broido, 2000; Evans & Wall, 1991).

먼저 지식은 성소수자의 역사, 법, 정책,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앨라이로서의 자기 확신과 지지 행동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여준다(Broido, 2000; Ji, 2007; Ji et al., 2009; Worthen, 2011). 반면 정보 부족은 성소수자 옹호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주

요 요인으로 밝혀졌다(DiStefano et al., 2000).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인지적 요소를 넘어 향후 기술 발달의 토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억압에 대한 공감적 인지, 즉 성소수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소외의 경험에 대한 감정적·구조적 이해는 앨라이 발달의 정서적 촉발점(emotional ignition point)으로 기능한다(Bishop, 2002; Duhigg et al., 2010). 또한 자신의 이성애자 정체성과 다수자 특권을 성찰하는 과정은 행동으로의 내적 동기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이를 통해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와 기술 향상의 필요성도 함께 강화된다(Caldwell & Vera, 2010; Worthen, 2011). 기술은 성소수자 개인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경청, 혐오 대응 등 상황적 개입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과 인지가 실천적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oty et al., 2010; Ji et al., 2009). 기술은 단순한 도구적 기능을 넘어 앨라이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기 효능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Athanases & Larrabee, 2003).

마지막으로, 실천은 가장 뚜렷한 앨라이 정체성의 표현으로 상징적 행위(예: 무지개 아이콘, 긍정적 메시지 표시)부터 제도적 변화를 위한 조직적 활동까지의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Duhigg et al., 2010; Goldstein & Davis, 2010). 주목할 점은 실천이 독립적 차원이 아니라 지식, 인지, 기술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되는 최종 단계라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천이 앨라이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정체성 발달의 결과적 산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Bliuc et al., 2007; Ji et al., 2009).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독립적이기보다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역동적 구조를 가진다. 억압에 대한 인지는 지식 습득의 동기가 되고 지식은 기술로 이어지며 기술은 다시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앨라이로서의 실천 경험은 인지를 심화시키고 기술을 재정립하게 하며 새로운 정보 습득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앨라이 정체성이 정태적인(static) 특성이 아니라 발달적 과정에 따라 심화되고 확장되는 동적 상태임을 보여준다(Bishop, 2002; Broido, 2000; Evans & Wall, 1991). 본 연구에서 타당화할 앨라이 정체성 척도는 위의 네 가지 요소(지식, 억압 인지, 기술, 실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Jones와 동료들(2014)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AIM의 요인 구조는 '지식-기술', '개방-지지', '억압 인지'의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앨라이 정체성 척도의 세 요인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 성소수자에 대한 인지, 지지 역량, 실천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 옹호 척도(Social Issues Advocacy Scale, Nilsson et al., 2011),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Sodowsky et al., 1994)와 유사한 기반을 가진다. 예컨대, 사회정의 옹호 척도는 정치·사회적 옹호 행동(Political and Social Advocacy), 정치적 인식(Political Awareness), 사회문제 인식(Social Issue Awareness), 차별 대응(Confronting Discrimination)의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참여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는 다문화 상담을 위한 기술(Multicultural Counseling Skills), 인식(Multicultural Awareness), 관계(Multicultural Counseling Relationship), 지식(Multicultural Counseling Knowledge)을 측정함으로써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그러나 AIM은 기존 척도들과 달리 측정의 초점을 성소수자에 대한 인지와 지지 역량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성애 규범성이 강력히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사회정의 옹호 수준을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 정도와 동치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판 앨라이 정체성 척도의 타당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AIM은 문제인지·지식·기술·실천을 '사회적 역량' 수준에서가 아닌 앨라이 정체성의 하위 요인 구조로서 통합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연대와 실천을 가능케 하는 정체성의 차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목적

AIM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데 국한되었던 기존 척도 연구의 한계를 넘어, 앨라이의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지지적 및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성소수자 억압에 대한 인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앨라이 정체성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AIM은 성소수자 집단 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척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Jones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한국판 앨라이 정체성 척도(Korean version of Ally Identity Measure; K-AIM)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이러한 척도의 강점을 한국 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K-AIM은 앨라이 집단의 사회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서, 성소수자 지지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연구 1: 예비조사

연구 1에서는 AIM을 번역-역번역하여 번안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내에서도 선행 연구와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 절차

원척도의 개발자인 Jones(2022. 7. 29. 이메일 회신)의 승인을 받은 후 AIM에 대한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최종 번안하였다(Brislin, 1970). 번안 과정에는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사회 및 문화심리학, 사회학을 전공한 총 4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후 영어영문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영어로 역번역을 의뢰하여 의미상 일치 정도를 확인하였고 원문항과 의미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번역 문항들은 이중 언어 사용자들과 함께 재검토하였다.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쳤음에도 해석이 모호하거나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항들에 대해서는 비성소수자 3명(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스스로를 앨라이로 정체화하거나 친밀한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비성소수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개방-지지 요인 중 "I have taken a public stand on important issues facing sexual minority people."라는 원문에 대해 "나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는 "나는 성소수자들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등 여러 개의 번안된 문장을 제시하고 그 중 가장 의미를 알기 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견 반영 후 재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 1을 위한 AIM의 문항 번안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IRB 심의 번호: P01-202302-01-011),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성소수자부모모임, 전문상담교사 커뮤니티,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에 설문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해당 집단의 지인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산되었다. 설문 시작 전 제시된 연구 설명문에는 본 연구가 성소수자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지닌 개인의 정체성, 즉 앨라이 정체성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번안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답자 집단의 반응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를 앨라이로 명확히 정체화하는지의 여부를 연구참여자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앨라이 정체성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과정적 정체성이라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소정의 모바일 기프티콘이 제공되었으며 기부를 선택한 참여자에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대체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연구 참여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앨라이를 '스스로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정체화하면서도 성소수자(LGBT) 집단의 필요와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대의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에 근거하였다(Jones et al., 2014). 그러나 국내에서는 앨라이라는 용어가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어, 젠더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다(한채윤, 2023). 이와 같은 국내 맥락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자를 반드시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방법론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스스로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정체화하는 비성소수자'로 한정하였다. 첫째, 개념적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척도가 사회적 특권 집단인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 외집단 지지로서의 앨라이 정체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모집단을 설정함으로써 원척도와의 개념적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척도의 목적이 외집단 지지를 기반으로 한 앨라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는 만큼 모집단을 비성소수자로 한정하는 것이 원척도의 이론적 틀을 준수하고 개념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개념적 혼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경우, 성소수자 정체성과 앨라이 정체성이 개념적으로 혼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자신이 속한 성소수자 집단을 지지하는 앨라이는 내집단 연대 또는 공동체 소속감과 더 밀접한 변인으로 볼 수 있어, 외집단 지지에 초점을 맞춘 앨라이 정체성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측정 변인의 개념적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비성소수자로 한정하였으며, 연구 설명문에 그 정의를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그리고 이성에게 성적/낭만적 끌림을 느끼는 이성애자'로 명시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성소수자 내부 연대와 같은 앨라이십의 확장된 개념은 추후 연구에서 소속감 또는 집단 동일시 등의 변인을 통해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에 참여한 117명 중 해외 거주자 1명, 자신을 성소수자(성별 및 성적 지향 소수자; sexual and gender minority)로 정체화한 7명을 제외하고 총 110명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2.32세(SD = 10.33)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38명(34.55%), 여자 72명(65.45%)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61명(55.45%), 30대 32명(29.09%), 40대 4명(3.64%), 50대 10명(9.09%), 60대 이상 3명(2.73%)으로 20대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앨라이 정체성 척도(Ally Identity Measure: AIM)

AIM은 Jones 외(2014)가 앨라이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성소수자에 대해 친화적 태도를 지닌 개인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지식-기술 요인, 개방-지지 요

인, 억압 인지 요인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지식-기술 요인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며 성소수자 집단을 돕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술 요인의 문항 예로는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를 알고 있다'가 있다. 개방-지지 요인은 성소수자에 대해 개방적이며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방-지지 요인의 문항 예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가 있다. 억압 인지 요인은 성소수자가 겪는 일상적인 불평등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한다'가 있다.

원척도는 지식-기술 요인 8문항, 개방-지지 요인 7문항, 억압 인지 요인 4문항으로 총 19개 문항을 포함하며, 5점 리커트(Likert)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 개발 과정 중 탈락한 5문항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연구 1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특히 특정 문항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배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척도의 초기 문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문항의 반응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합한 최적의 척도를 구성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항 구성 전략은 선행 연구에서도 활용된 접근으로,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 축소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완화하고, 초기 척도 개발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문항들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국내 대상자에게는 유의미할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박도담, 유성경, 2019).

원척도에서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최소 .76 이상이었고 연구 1에서 사용한 앨라이 정체성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 이었다. 요인별로 지식-기술 요인은 .92, 개방-지지 요인은 .86, 억압 인지 요인은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AIM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과 오블리민 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추출 기준으로 고유값 1 이상을 적용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Fabrigar et al., 1999; Ledesma & Valero-Mora, 2007; Tabachnick & Fidell, 2013).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 및 Kaiser-Meyer-Olkin(KMO) 표본 적절성 검정을 실시하여 각 척도의 요인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Bartlett 구형성 지표는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며 유의확률이 .05 미만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artlett, 1951). 또한 KMO는 변인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보여주며 .80 이상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8). X^2(Chi-Square Test of Model Fit)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므로 단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절대 적합도 지수(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와 증분적합도 지수(Tucker-Lewis Index; TLI)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Bollen, 1989). 따라서 X^2 값보다는 RMSEA와 TLI를 중심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고려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190) = 1414.350$, $p < .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KMO 표본 적절성 검정 결과, 전체 수치는 0.903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개별 문항의 KMO 수치는 21번(0.705), 22번(0.663), 23

번(0.786)을 제외하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1~23번 문항의 경우, KMO 수치가 0.8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요인부하량이 충분히 높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측정하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 해당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AIM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와 같이 1~10번 문항은 모두 요인1로 구성되었고, 21~24번 문항도 요인3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원척도에서 요인1로 분류되었던 11~13번 문항 중 11번과 12번 문항은 요인2로 구분되었고 13번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0.4 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원척도에서 요인2로 구분되었던 14~20번 문항은 연구 1에서 요인1에 혼입되어 두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수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X^2(207) = 348.647$, $p < .001$, TLI = 0.883, RMSEA = 0.078(90% CI[.065, .093])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RMSEA 값은 0.08 미만으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TLI 값은 0.883로 일반적으로 적절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0.9을 충족하지 못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논 의

연구 1은 AIM의 국내 타당화 가능성과 요인구조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번역-역번역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번역이 적절하

표 1. K-AIM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1	내 주위에 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예: 책, 웹사이트, 지원 단체 등).	.677	.156	.114
2	나는 성소수자의 가족들을 위한 자원에 대해 알고 있다(예: 성소수자부모모임).	.684	.141	.162
3	나는 성소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804	.132	.088
4	나는 차별을 겪는 성소수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819	.168	.005
5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를 알고 있다.	.664	.200	.045
6	나는 나의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알고 있다.	.718	.004	.144
7	나는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얻고 있다.	.725	.008	.192
8	나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종교나 영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774	.105	.237
9	나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성소수자의 평등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624	.082	.070
10	나는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알고 있다.	.822	.068	.163
11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 (R)	.071	.901	.064
12	내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소수자로 생각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 (R)	.031	.765	.072

표 1. K-AIM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계속)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13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살펴본다.	.039	.222	.214
14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508	.285	.173
15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609	.251	.175
16	나는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고는 한다	.561	.023	.357
17	나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638	.071	.338
18	나는 성소수자가 더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852	.066	.077
19	나는 성소수자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	.493	.210	.187
20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569	.299	.393
21	성소수자 청소년은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한다.	.130	.037	.795
22	성소수자 청소년은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더 심한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경험한다.	.027	.142	.848
23	비성소수자는 직장에서 경험하지 않는 어려움을 성소수자가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131	.057	.607
24	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한다.	.086	.129	.658
	고유값 (Eigenvalue)	8.300	2.768	2.196
	설명변량 (%)	36.1	12.0	9.5

표 2. K-AIM EFA 모형적합도 지수 (N =110)

	X^2	df	p	TLI	BIC	RMSEA	RMSEA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EFA	305.84	187	<.001	.883	-573.15	.075	.061	.092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연구 1의 EFA 결과, K-AIM 척도는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3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문항이 원척도와 다른 요인으로 부하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원척도의 지식-기술 요인 문항과 개방-지지 요인 문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혼재된 양상을 보인 점은 두 요인 간의 강한 개념적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는 앨라이 정체성 요인들 간의 순환 관계에 따른 결과로,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지지적 태도가 곧 정보 습득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보 습득과 실천이 다시금 개방-지지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인지가 개념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요인 간 중첩된 구조로 나타났을 수 있다. 본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 간의 연결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개념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FA에서 요인부하량이 기준치(.40) 미만으로 나타나 탈락된 문항(13번,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살펴본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본 척도의 일부 문항이 국내 문화 및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FA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가정과 달리 3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판 문항의 의미적 차이, 문화적 맥락에 따른 응답 패턴 변화, 혹은 개념적 중복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문항의 배치나 구조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요인 간 혼입이 발생한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EFA에서 도출된 구조가 실제 데이터에 적합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1의 표본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개인차 변인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의 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적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AIM의 기본적인 3요인 구조와 국내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척도와 다르게 요인 간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나타났고, 모형적합도 지표에서도 요인 간 구조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고, 연구 2에서는 다른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K-AIM의 요인구조를 재검증하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2: 본 조사

연구 2에서는 보다 정교한 구조 검증을 위해 EFA와 CFA를 실시하여 K-AIM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와 지식을 측정하는 LGB-KASH(Lesbian, Gay, Bi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cale for Heterosexuals)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을 측정하는 K-TABS(Korean Version of the 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를 선택하였다. 성소수자 집단에는 성적지향 소수자(Sexual minority)와 성별 소수자(Gender minority)가 포함되나 이 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인지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Lewis et al., 2017) 두 척도를 모두 활용하였다. LGB-KASH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와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LGB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앨라이 정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Herek, 2000; Wright & Wegner, 2012). 한편, 성소수자 집단에는 성적지향 소수자(Sexual minority) 뿐만 아니라 성별 소수자(Gender minority) 역시 포함되나 응답자들은 이 두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나 인지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Lewis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비성소수자들은 LGB 집단보다 트랜스젠더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지식을 평가하는 척도인 K-TABS를 LGB-KASH와 함께 활용하여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이현지 외, 2021; Kanamori et al., 2017; Worthington & Dilon, 2005).

다음으로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성격 5요인 검사 단축형(BFI-SF)의 하위 요인 중 개방성과 우호성 요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 중 인상관리 하위척도를 선택하였다(김용석, 2010; 김용석, 2018; 심예은 외, 2021). 개방성(Openness)은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려는 성향을 반영하는 성격 특성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도 개방성은 편견과 부적 상관이 밝혀진 바 있다(Ekehammar & Akrami, 2003; Ekehammar et al., 2004). 하지만 앨라이 정체성은 수용적인 태도 이상의 사회적 정의나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포함하

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이므로, 개방성은 앨라이 정체성과의 일부 개념적인 중복이 가능하지만 핵심적인 성격은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우호성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협력성, 공감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으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성소수자들의 입장에 쉽게 공감하며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앨라이 정체성은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친밀성이나 협력성을 넘어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이 성소수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친근함과 협력을 보인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쉽게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호성과 앨라이 정체성을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인상관리 하위척도는 응답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만약 앨라이 정체성이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의해 형성된 태도라면 인상관리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앨라이 정체성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 및 기술 형성과 실천적 행동을 반영한다. 또한 우호성에서의 가정과 동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인상관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FI-SF의 개방성 및 우호성 하위 요인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하위요인인 인상관리를 앨라이 정체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1과 연구 2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구성이 다르므로 연구 1의 연구 참가자들이 혼입될 때 연구 결과의 타당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크리닝 문항을 추가하여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 참여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비성소수자 성인' 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중복 응답, 한 줄 응답, 비선형적 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 제외 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자 중 67명(14%)이 제외되어 총 402명(86%)의 응답만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한 방식과 홍보 대상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앨라이 정체성 척도(K-AIM)

AIM은 Jones 외(2014)가 개발 및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앨라이 정체성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다.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 개발 과정 중 탈락한 5문항이 한국판 앨라이 정체성 척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K-AIM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지식-기술 요인은 .92, 개방-지지 요인은 .91, 억압 인지 요인은 .80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에 대한 태도 척도(Lesbian, Gay, Bi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cale for Heterosexuals: LGB-KASH)

LGB-KASH는 Worthington과 Dillon(2005)이 개발 및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K-AIM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LGB-KASH는 아직 한국

어판으로 공식적인 번안 및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조사에 앞서 해당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적절히 번안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LGB-KASH는 이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LGB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LGB에 대한 내재화된 긍정성, 평등권에 대한 태도, 지식, 종교적 갈등, 혐오라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내재화된 긍정성은 LGB 지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과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 참여 의지를 측정한다. 평등권에 대한 태도는 결혼, 자녀 양육, 의료 및 보험 수혜 등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권리 인식을 평가한다. 종교적 갈등은 LGB에 대한 갈등적 신념, 특히 종교적 신념과 연관된 태도를 반영한다. 지식은 LGB 공동체와 관련된 역사, 상징, 조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혐오는 LGB에 대한 회피, 불편함, 증오, 폭력과 관련된 태도를 반영한다. LGB-KASH의 전체 문항 수는 28개이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5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Raju et al., 2019),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1 ~ .89로 나타났다.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 (K-TABS)

K-AIM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anamori 외(2017)가 개발하고 이현지 외(2021)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K-TABS를 사용하였다. K-TABS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트랜스젠더와의 대인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 의식이라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트랜스젠더와의 대인관계 요인은 트랜스젠더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성별 고정관념 요인은 전통적 성별 이분법 및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을, 인권 의식 요인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총 22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현지 외(2021)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6,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 ~ .86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검사 단축형(BFI-SF)의 개방성과 우호성

K-AIM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심예은 외(2021)가 성격 5요인검사(BFI)를 단축하여 타당화한 BFI-SF의 개방성과 우호성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해서 1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 아이디어, 감정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수용하고 탐구하려는 성향을 반영하며, 우호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협력적이고 호의적이며 공감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Costa & McCrae, 1992). 심예은 외(202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개방성 척도는 .91, 우호성 척도는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방성 요인은 .86, 우호성 요인은 .63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의 인상관리

K-AIM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SDS-24의 인상관리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김용석, 2010;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르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는 성향을 측정한다(김용석, 2018; Rubin & Babbie, 2008). 본 척도는 자기기만 요인과 인상관리 요인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인상관리 요인 8문항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응답자의 성향이 앨라이 정체성과 구분됨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는 이항적 점수화 방식(dichotomous scoring method)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뒤 극단적인 응답만을

점수화한다. 따라서 인상관리 문항의 응답에서 1 또는 2에는 1점, 나머지 응답에는 0점을 부여한 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채점하였다. 김용석(201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계수(Cronbach's α)는 .79, 인상관리 척도의 신뢰계수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402명의 연구 참가자를 각각 201명씩 무선 추출하여 EFA와 CFA 분석을 수행하였다. EFA를 실시하기 앞서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K-AIM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나타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문항의 양호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탁진국, 2007). 또한 왜도의 경우 절대값 3, 첨도의 경우 절대값 8을 넘지 않아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문항-총점 간 상관이 .20 이하일 경우 양호도가 떨어지며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이 .30이하 .80 이상일 경우 문항의 양호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Kline, 2015; West et al., 1995). 문항 양호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삭제하고 이후 절차를 수행하였다.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고 남은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KMO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KMO는 변인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보여주며 .80 이상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8). 또한 구형성 지표는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며 유의확률이 .05 미만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artlett, 1951).

EFA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3요인으로 고정하여 최대우도 추정법과 오블리민 사각 회전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기준으로는 고유값 1 이상을 적용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Fabrigar et al., 1999; Ledesma & Valero-Mora, 2007; Tabachnick & Fidell, 2013). 척도의 적절성을 위해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산출하였다. X^2 값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요인 수를 과대추정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RMSEA와 TLI를 함께 산출하여 평가하였다(Fabrigar et al, 1999). RMSEA는 .08 이하, TLI는 .90 이상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8).

다음으로 CFA를 통해 탐색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통계량, 비교 적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TLI, RMSEA, 표준화 잔차 평균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하였고, RMSEA와 SRMR은 .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척도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과 하위요인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확인하여 문항 간 이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오차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수정지수는 10 이상일 경우 공분산을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Byrne, 2016).

마지막으로 K-AIM의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으며 0.7 이상일 경우에 수용할만한(acceptable), 0.8 이상일 경우에 좋은(good), 0.9 이상일 경우에 훌륭한(excellent) 수준으로 간주하였다(George & Mallery, 2003). 또한 수렴 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관련된 다른 척도들과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는 본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상관이 높은지를 확인하였다. 높은 상관은 두 척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

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는 본 척도가 타 개념과 구별되는 고유한 측정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총 402명의 연구참가자 중 여성은 334명(83.3%), 남성은 67명(16.7%)으로 여성의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고, 평균 연령대는 34.92세(SD = 9.76)로 '30대' 147명(36.6%), '20대' 136명(33.8%)으로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서울' 220명(54.7%), '경기도' 94명(23.4%)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는 '기혼' 236명(65.4%), 교육사항은 '4년제 대학 졸업' 171명(45.5%), 종교 여부는 '종교 없음'이 229명(59.0%)이 각각 가장 많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K-AIM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극단적인 평균값을 보고하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치를 넘는 문항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과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문항-총점 간 상관이 .20인 12번(내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소수자로 생각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 역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이 .30 이하인 11번(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 역문항)과 13번(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살펴본다)을 제외하였다.

EFA 결과, KMO 측도는 .938이었으며 구형성 지표는 X^2 = 2665(p < .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확인되었다. 이후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19번(나는 성소수자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을 제거하였다. 문항을 제거한 뒤 요인구조 행렬을 재산출한 결과, K-AIM은 기존 24개 문항에서 4개의 문항이 제거되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요인 구조의 누적 설명량은 47.9이었고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구조와 문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K-AIM의 요인구조를 20문항 3요인으로 확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총 9문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기술의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Knowledge and Skills' 요인에 해당하며 원척도와 같이 1~6, 8~10번 문항은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원척도의 요인명과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요인 1을 '지식-기술'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총 7문항으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정도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Openness and Support' 요인에 대응되는 것이며 원척도에서 요인 1에 포함되었던 7번 문항은 요인 2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며 혼입되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 및 지지가 지식, 권리 친화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해당 문항이 성소수자에 대해 연구참가자가 기존에 습득한 지식의 양이 아닌 얼마나 지식을 습득하는 행동에 개방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요인 2는 요인 1, 3과 달리 원척도와 동일하게 문항이 적재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문항을 제외하면 원척도와 구성이 일치하므로 요인 2를 원척도의 요인명과 문항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4문항으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억압을 인지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Oppression Awareness' 요인에 해당한다. 요인 3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전체		EFA		CFA	
	N = 402		n = 201		n = 201	
	N	%	n	%	n	%
성별						
남	67	16.7	36	17.9	31	15.4
여	334	83.1	165	82.1	169	84.1
기타	1	0.2%	0	0	1	0.5
연령M(SD)	34.9(9.8)		34.7(9.9)		35.1(9.7)	
만 19세	4	1.0	3	0.7	1	0.2
20대	136	33.8	71	17.7	65	16.2
30대	147	36.6	72	17.9	75	18.7
40대	78	19.4	36	9.0	42	10.4
50대	30	7.5	15	3.7	15	3.7
60대	7	1.7	4	1.0	3	0.7
지역						
서울・경기	314	78.1	154	38.3	160	39.8
강원	9	2.2	3	0.7	6	1.5
충청	9	232	6	1.5	3	0.7
전라	7	1.7	5	1.2	2	0.5
경상	17	4.2	10	2.5	7	1.7
제주	2	0.5	2	0.5	0	0
응답거부	44	10.9	20	5.0	24	6.0
혼인상태						
기혼	263	65.4	56	13.9	58	14.4
미혼	114	28.4	133	33.1	130	32.3
이혼・별거	16	4.0	7	1.7	9	2.2
기타	9	2.2	4	1.0	4	1.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36	9.0	20	5.0	16	4.0
전문대 졸업	30	7.5	16	4.0	14	3.5
4년제대 졸업	202	50.2	96	23.9	66	16.4
대학원 졸업 이상	131	32.6	67	16.7	64	15.9
응답거부	3	0.7	2	0.5	1	0.2
종교						
개신교	69	17.8	31	8.0	38	9.8
천주교	60	15.5	29	7.5	31	8.0
불교	23	5.9	14	3.6	9	2.3
기타	7	1.8	3	0.8	4	1.0
없음	229	59.0	114	29.4	115	29.6

표 4. K-AIM의 모형 적합도 지수 (N =402)

	X^2	df	p	CFI	TLI	SRMR	RMSEA	RMSEA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EFA	275.45	133	<.001		.914		.073	.061	.085
CFA	253.86	161	<.001	.959	.952	.045	.054	.041	.066

에 속한 모든 문항들은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3을 원척도 요인명과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억압 인지'로 명명하였다. 정리하면 지식-기술 요인에는 1번 ~ 6번, 8번 ~ 10번 문항, 개방-지지 요인에는 7번, 14번 ~ 20번 문항, 억압 인지 요인에는 21번 ~ 24번 문항이 부하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K-AIM의 요인구조에 대하여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X^2 = 275.45, df = 133, p < .001, RMSEA = 0.073(95% CI[.061, .085]), TLI = 0.914로 AIM의 3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전체 K-AIM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4, 지식-기술 요인은 .91, 개방-지지 요인은 .92, 억압 인지 요인은 .81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을 삭제했을 때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EFA로 선정된 3요인 20문항에 대한 CFA를 실시하였다. 전체 문항의 양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문항을 제거하지 않고 CFA를 진행하였으나 초기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수정지수를 참조하였다. 수정지수가 10 이상인 항목 중 연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인 1번과 5번, 7번과 15번, 7번과 24번, 8번과 18번, 15번과 16번, 16번과 20번 문항의 측정오차간 상관을 자유모수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식-기술 요인의 7번과 억압-인지 요인의 24번, 지식-기술 요인의 8번과 개방-지지 요인의 18번은 서로 다른 요인 간 수정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어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 값은 X^2 = 253.86(p < .001), RMSEA = .054(95% CI[.041, .066]), CFI = .959, TLI = .952, SRMR = .045로 나타났다. 따라서, K-AIM의 3요인 구조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그림 1과 같이 .62 ~ .84로 나타났다.

K-AIM의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와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았을 때, 모든 하위 요인은 전체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54 ~ .94, p < .001) 하위요인들 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6 ~ .76, p < .001).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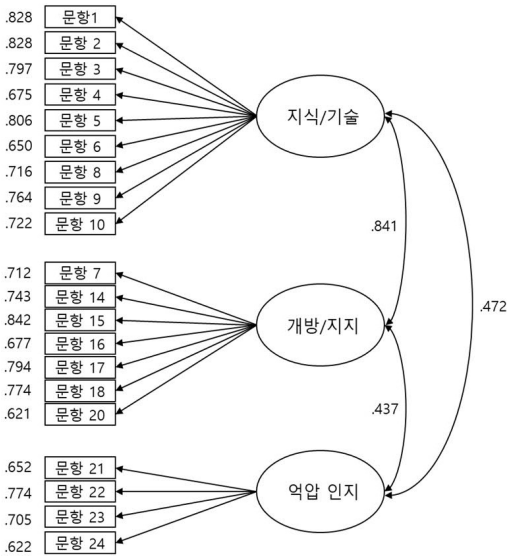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표준화 계수)

표 5. K-AIM의 EFA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1	내 주위에 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예: 책, 웹사이트, 지원 단체 등).	.797	-.042	.165
2	나는 성소수자의 가족들을 위한 자원에 대해 알고 있다(예: 성소수자부모모임).	.732	.006	.153
3	나는 성소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607	.209	-.122
4	나는 차별을 겪는 성소수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606	.245	-.151
5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를 알고 있다.	.466	.333	.097
6	나는 나의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알고 있다,	.672	.063	-.039
7	나는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얻고 있다.	.341	.512	-.037
8	나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종교나 영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706	-.095	.103
9	나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성소수자의 평등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412	.328	-.093
10	나는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알고 있다.	.554	.225	.050
14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003	.759	.092
15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029	.874	.147
16	나는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고는 한다.	.101	.615	-.092
17	나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029	.751	.148
18	나는 성소수자가 더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45	.616	-.019
20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073	.606	.222
21	성소수자 청소년은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한다.	.134	-.045	.662
22	성소수자 청소년은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더 심한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경험한다.	.153	-.066	.728
23	비성소수자는 직장에서 경험하지 않는 어려움을 성소수자가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090	.200	.744
24	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한다.	.087	.279	.527
	고유값	3.982	2.565	1.875
	설명변량 (%)	23.7	23.0	11.2

K-AIM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고, 지식-기술 요인은 .92, 개방-지지 요인은 .88, 억압 인지 요인은 .78으로 모두 양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 계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성 타당도 분석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K-AIM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K-AIM과 K-TABS 및 LBG-KASH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AIM의 모든 하위 요인은 K-TABS의 모든 하위 요인과 중간 크기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36 ~ .56, p < .001). 또한 K-AIM의 모든 하위 요인은 LGB-KASH의 종교적 갈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요인은 중간에서 큰 크기의 유의한 상관(r = -.34 ~ .82,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IM의 모든 하위 요인은 LBG-KASH의 혐오와 중간 크기의 유의한 부적 상관(r = -.34 ~ -.53, p < .001), LGB 지식과 중간에서 큰 크기의 유의한 정적 상관(r = .45 ~ .82, p < .001), LGB 시민권과 중간 크기의 유의한 정적 상관(r = .41 ~ .57, p < .001), 내재화된 인정과 중간에서 큰 크기의 유의한 정적 상관(r = .44 ~ .68, p < .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AIM과 종교적 갈등의 경우에는 개방-지지 요인과 작은 크기의 부적 상관(r = -.12, p < .05)이 나타났으며 지식-기술 요인(r = -.00, p = .903) 및 억압 인지 요인(r = -.03, p = .546)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갈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지만

표 6. K-AIM의 하위 요인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N = 402)

		지식-기술	개방-지지	억압 인지
수렴 타당도				
K-TABS	인간관계	.43***	.56***	.44***
	고정관념	.38***	.50***	.49***
	인권의식	.36***	.51***	.49***
	혐오	-.34***	-.53***	-.41***
LGB-KASH	LGB 지식	.82***	.78***	.45***
	LGB 시민권	.41***	.57***	.50***
	종교적 갈등	-.00***	-.12***	-.03***
	내재화된 인정	.62***	.68***	.44***
변별 타당도				
BFI-SF	개방성	.09*	.14***	.18***
	우호성	.30***	.36***	.14***
SDS-24		-.14***	-.10***	.01***

주 1. K-AIM = 한국판 성소수자 앨라이 정체성 척도, K-TABS =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 LGB-KASH = LGB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for Heterosexuals, BFI-SF = Big Five Inventory-Short Form, SDS-24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주 2. *p < .05, **p <. 01 ***p < .001.

K-AIM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AIM과 BFI-SF의 우호성 및 개방성, SDS-24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AIM의 하위요인과 우호성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r = .09, p = .072) 약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4 ~ .18, p < .01). 또한 개방성과는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4 ~ .36, p < .01). K-AIM의 하위요인과 SDS-24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r = .01, p = .791) 작은 정도의 부적 상관을 나타났다(r = -.10 ~ .-14, p < .05). 이러한 작거나 중간 범위의 상관값은 개념적으로 관련된 구성 요소와의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개념적 중복을 나타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논 의

연구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2의 EFA 결과, K-AIM은 지식-기술 요인 9문항, 개방-지지 요인 7문항, 억압 인지 요인 4문항으로 부하되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FA에서 확인한 3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CFA 결과, CFI와 TLI의 값이 초기의 모형 적합도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 지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 중 연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일부 문항들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자유모수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하위 요인 중 7번과 24번, 8번과 18번 문항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 경로를 추가하여 자유모수로 설정하고 모형에 반영하였다. 지식-기술 요인의 7번 문항(나는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얻고 있다)과 억압-인지 요인의 24번 문항(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소수자가 억압받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게 될수록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억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두 문항은 순환적 관계를 지닌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지식-기술 요인의 8번(나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종교나 영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과 억압인지 요인의 18번(나는 성소수자가 더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의 경우, 성소수자 친화적인 종교 및 영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진술이 곧 해당 주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려는 개방적, 지지적 태도에 기반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이민지, 2024). 수정 지수를 반영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기존에 비하여 우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개별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하거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AIM 번안 및 타당화를 거치며 원척도의 3요인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원척도의 일부 문항이 제외되거나 반대로 원척도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항의 개념적 및 통계적 특성이 변화하며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먼저 원척도에서 개념적 중복을 이유로 삭제된 문항이 K-AIM에서는 유지되었다. 원척도에서는 “나는 성소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I have developed the skill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if a sexual minority person needs my help)”와 “나는 차별을 겪는 성소수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If I was approached by a sexual minority person who was experiencing discrimination, I have the skills to be able to support them.).” 문항이 서로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한국어판에서는 두 문항이 모두 유지되었다. 원척도에서는 증분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았으며, 수정 지수 분석 시 유의한 공분산이 존재한 것이 개

념적 유사성 판별의 근거가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 조합에 대한 수정 지수가 낮았으며(MI < 3) 모델 적합도 지수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두 문항이 개념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결과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능성의 측면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성실성의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하여 문항을 유지하였다.

또한 원척도에서 상대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된 문항이 K-AIM에서는 유지되거나 다른 문항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성소수자의 평등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원척도에서 지식-기술 요인의 다른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되었으나 K-AIM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624로 강한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h^2) 값 또한 .389로 해당 요인에 의해 문항이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문항에 포함되었다(Hair et al., 2010; Tabachnick & Fidell, 2013). 이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한 북미권과 한국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 및 미디어를 통해 비교적 넓게 알려져 있다(Chauncey, 1994; Faderman, 1991; Ghaziani, Taylor, & Stone, 2016).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곧 앨라이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되지 않아 해당 문항이 앨라이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들을 변별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미디어나 학교 교육에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 수준에 대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소수자로 생각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문항이 원척도에서는 최종 문항으로 유지되었으나, K-AIM에서는 하위 요인 내 문항 간 상관이 낮아 최종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본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해당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곧 해당 문항이 측정하고자 했던 성소수자 지지 행위에 대한 불편감이 본 표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이나 앨라이 이슈에 관심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앨라이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주제에 대한 민감성과 지지 성향이 높은 참가자들이 표본에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문항이 측정하고자 했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혹은 동일시 혼동으로 인한 불편감이 실제 응답에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루는 문항에서 자기 성찰과 행동적 실천을 구분하는 문화적 차이도 관찰되었다.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살펴본다"와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문항이 원척도에서는 개념적 중복으로 판단되어 모두 제외되었으나 K-AIM에서는 후자의 문항이 유지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므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편견에 맞서는 방안을 탐색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보다 강력하고 적절한 앨라이 정체성의 지표로 받아들여진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지식-기술 요인은 단순한 인지적 정보 습득을 넘어 개인적 관계 및 옹호 노력과 같은 실천적 발달 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연결된다는 앨라이 정체성 발달 이론에도 부합한다(Moore, 2021). 따라서 K-AIM에서 지식-기술 요인은 수동적인 정보 습득보다는 앨라이 정체성 발달에 필요한 능동적인 자기 교육 및 실천 동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K-AIM이 앨라이 정체성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다. 내적합치도 분석 결과, 전체 척도 및 각 하위요인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원척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K-AIM은 전체 문항 및 하위 요인들에서 문항 간 동질성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적합치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K-AIM의 문항들이 앨라이 정체성의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논의가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앨라이 정체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는 것은 본 척도의 문화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요인의 내적합치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이는 해당 요인에서 문항들이 중복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해당 문항들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각 문항이 유사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또한, 원척도의 문항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향후 앨라이 정체성에 대한 문화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수렴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K-AIM은 LGB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LGB-KASH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GB-KASH의 LGB 지식, LGB 시민권, 내재화된 인정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혐오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앨라이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지,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고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K-AIM이 앨라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적 특성과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유사 구인들과 높은 수준의 수렴타당도를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K-AIM은 LGB-KASH의 종교적 갈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약 60%의 연구 참가자가 종교 없음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종교적 갈등 문항에 응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종교적 갈등을 가진 이들과 가지지 않은 집단의 응답 내용이 혼재되어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보고되었거나 앨라이 정체성과 LGB-KASH의 종교적 갈등 간의 상관이 실제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다만, 이 요인은 K-AIM의 핵심 측정 변인이 아닌 외부 척도의 하위 요인이기에, K-AIM의 전반적인 수렴 타당도는 다른 주요 변인들(LGB 지식, 혐오, 내재화된 인정 등)과의 일치된 결과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K-AIM과 LGB-KASH의 종교적 갈등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 문화 및 종교적 맥락에 대한 문화적 재구성과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K-AIM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을 측정하는 K-TABS와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TABS의 대인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앨라이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트랜스젠더와의 상호작용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 및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K-AIM에서 측정하는 개념과는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진 LGB-KASH 및 K-TABS와 중간에서 큰 상관 값이 보고된 것은 K-AIM이 이들과 이론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 K-AIM은 LGB-KASH 및 K-TABS의 긍정적 요인과 정적 상관을, 부정적 요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므로 관련 개념과의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K-AIM의 하위요인과 성격 5요인 중 우호성은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았고, 개방성은 작

거나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앨라이 정체성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우호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는 개방성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억압에 맞서 행동하는 특성과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옹호 및 지지가 갈등 유발 요인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우호성과 같은 성격 특성이 앨라이 정체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K-AIM의 지식-기술 요인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방성 요인과 중간 정도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개방-지지 요인과는 낯설거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열려 있는 개방성과 중간 정도의 상관이 나타났다. 하지만 억압 인지와는 작은 상관이 나타났는데,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성격적 특징으로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억압적인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K-AIM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에는 작은 부적 상관 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여 두 변인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도덕적 미덕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친화적 태도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앨라이 정체성이 단순한 사회적 규범 준수를 넘어서 성소수자 공동체와의 연대 및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내적 정체성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앨라이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앨라이 정체성 척도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연구 1에서는 EFA를 수행하여 번역된 척도가 원척도와 동일 요인구조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로써 앨라이 정체성 척도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바탕으로 EFA와 CF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AIM의 3요인 구조 및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K-AIM은 지식-기술 요인 9문항, 개방-지지 요인 7문항, 억압 인지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를 유지하였다. 다만 번안 및 타당화 과정에서 원척도 개발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문항이 포함되거나, 반대로 원척도에 포함되었던 일부 문항이 제외되는 등 문항 구성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담론의 축적 정도와 사회적 가시성, 교육 및 미디어 환경의 차이로 인해 앨라이 정체성이 표현되고 발달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내적합치도 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 이상으로, 좋은 수준에서 훌륭한 수준까지의 신뢰도를 보였다.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AIM은 기존에 예상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연구 시사점

AIM은 사회 정의에 기초한 앨라이 정체성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Bristol, Kostelec & MacDonald, 2018; Collins, Zhang & Sisco, 2021; McEWing, 2020; Warren & Bordoloi, 2023; Yu et al., 2023), K-AIM 또한 국내에서 성소수자 앨라이 정체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AIM은 기존의 연구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 즉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에 머무르던 방식을 확장하여, 성소수자 억압 인지와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이를 활용하여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 및 정책 개발 및 효과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M의 하위 요인들 역시 이러한 의의를 뒷

받침한다. K-AIM의 개방-지지 요인은 성소수자를 동료 시민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측정하며, 억압 인지와 지식-기술 요인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인지,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Jones와 Brewster(2017)는 단순히 차별과 억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앨라이 정체성, 사회 정의에 대한 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실제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K-AIM은 단기적인 성소수자 친화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 억압에 대한 지식과 차별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앨라이 양성 과정에서 심화된 교육과 실천적 접근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아울러 K-AIM의 변별타당도 검증 결과는 앨라이 집단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K-AIM과 개방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기술, 개방-지지 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겪는 억압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호성 및 개방성과 같은 성격 특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심리적 기제나 문화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앨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앨라이 동료들과 함께 지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AIM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사회적 규범을 넘어 성소수자 공동체와의 연대와 지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고, 앨라이에 대한 지지를 적절히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체 연구 참가자 중 여성이 83.3%, 남성이 16.7%으로 여성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층에서는 20대 ~ 30대 청년층이 70.6%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도 서울・경기가 78.1%로 나타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의 특성에서 모집단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표본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관심이 높거나 성소수자 이슈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성소수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고현, 박혜경, 2023; 윤이현 외, 2016; Herek, 2003; Kite & Whitley, 1996; Ratcliff et al., 2006), 수도권 청년층이 성소수자 관련 정보와 친화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주락, 2015; 이서진, 2007; 홍예륜, 2019),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연령・성별이 보다 균형잡힌 표본 구성과 비자발적인 표본을 포함함으로써 척도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한계점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LGB-KASH의 경우, 종교적 갈등 요인에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상관분석 결과가 과소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의 원인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종교적 갈등 요인의 문항들은 종교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참여자의 59%를 차지하는 무종교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일관되게 응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항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종교가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거나,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문항 해석에 혼란을 겪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종교적 갈등 요인에서 나타난 낮은 상관값은 실제 상관이 낮기 때문이기보다 측정도구의 문화적 적합성과 응답자의 문항 해석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와 도구의 문화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인의 앨라이 정체성을 다룬 국내 학술연구가 부족하여 분석 결과의 심리사회적 해석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 성소수자가 당면한 정신건강 및 사회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외부 집단인 앨라이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남궁미, 박정은, 2020; 주유선 외, 2019). 따라서 한국 성소수자 앨라이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여 연구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앨라이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K-AIM은 관용의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 억압에 대한 인지와 성소수자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도구라는 장점을 가진다. Rostoksy 외(2015)는 이성애자 앨라이들에게도 앨라이 정체성이 개인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혐오가 아닌 동맹을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앨라이 정체성을 함양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차별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성소수자 앨라이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이정표를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고현은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상담, 그리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한석은 충남대학교에서 상담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전문상담교사로 재직 중이다. 사회정의 상담을 지향하며 성소수자 및 앨라이 정체성, 남성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서영은 서울대학교에서 공중화장실의 젠더 생산을 주제로 연구하며 사회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관련 주제로 강의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무진은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았다. 자살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고현, 박혜경 (2023).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성격, 37(2), 101-138.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2021). 웰컴투 앨라이월드. https://amnesty.or.kr/campaign/welcometoallyworld/

김미라 (2020).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2), 101-126.

김순남 (2013). 이성애 결혼/가족 규범을 해체/

(재)구성하는 동성애 친밀성; 사회적 배제와 '독립적' 삶의 모델 사이에서. **한국여성학**, 29(1), 85-125.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 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김주락 (2015). 드러냄으로 물들이는 공간-서울 낙원동 게이 커뮤니티에서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7(3), 100-113.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남궁미, 박정은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69-1498.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박지훈, 이 진 (2013). 한국 성인들의 동성애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27-45.

박차민정 (2011).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 문화**, 22, 29-52.

사단법인비온뒤무지개재단 (2025). 앨라이 드러내기. https://rainbowfoundation.co.kr/ally

시사저널 (2023년 6월 8일). 홍준표 "혐오감 주는 퀴어축제 반대…성다수자 권익도 중요."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299

심예은, 최은실, 정승철 (2021). 성격 5요인검사 단축형(BFI-SF) 타당화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2(3), 105-134.

이소정, 김은하 (2022). 앨라이십의 개념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7(2), 89-112.

이주영, 김정현, 조수미 (2020).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변화 과정 탐색. **청소년학연구**, 27(9), 31-55.

장미래, 송현주 (2021). 앨라이십 개념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60(2), 151-176.

장지윤, 안현의 (2018). 청소년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사회적 거리감. **청소년복지연구**, 20(1), 119-144.

정승철, 최은실 (2016). **성격 5요인검사 BFI 대학생용 매뉴얼**. 경기: 한국가이던스.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이민지 (2024). 한국 개신교회 남성 페미니스트의 성소수자 지지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40(2), 35-72.

이서진 (2007).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49, 23-44.

이현지, 김가림, 권유리, 신윤정 (2021).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K-TAB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077-1108.

탁진국 (2007).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2판)**. 서울: 학지사.

서울시 (2023년 5월 12일). 청소년 둘러대더니… "퀴어축제 걸려야" 혐오 회의록.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552.html

한채윤 (2023년 8월 30일). '앨라이' 티를 내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6457.html

홍예륜 (2019).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9(2), 96-133.

Athanases, S. Z., & Larrabee, T. G. (2003). Toward a consistent stance in teaching for equity: Learning to advocate for lesbian- and gay-identified youth.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2), 237-261.

Bartlett, M. S. (1951). A further note on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tatistical Psychology, 4*(1), 1-2.

Bishop, A. (2002). *Becoming an ally: Breaking the cycle of oppression in people* (2nd ed.). Fernwood Publishing.

Bliuc, A. M., McGarty, C., Reynolds, K. J., & Muntele, D. (2007). Opinion-based group membership as a predictor of commitment to political 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1), 19-32.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Bristol, S., Kostelec, T., & MacDonald, R. (2018). Improving emergency health care workers' knowledge, competency, and attitude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atients through interdisciplinary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Journal of Emergency Nursing, 44*(6), 632-639.

Broido, E. M. (2000). The development of social justice allies during college: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1), 3-18.

Brooks, A. K., & Edwards, K. E. (2009). Allies in the workplace: Including LGBT in HR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1*(1), 136-149.

Brown, W. (2006).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Sage.

Byrne, B. M. (201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3rd ed.). Routledge.

Caldwell, J. G., & Vera, E. M. (2010). Critical consciousness and liberatory learning: A framework for educational change. *Teacher Education and Practice, 23*(4), 548-561.

Chauncey, G. (1994). *Gay New York: Gender, urban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gay male world, 1890-1940*. Basic Books.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ollins, J. C., Zhang, P., & Sisco, S. (2021). Everyone is invited: Leveraging bystander intervention and ally development to cultivate social justice in the workpla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20*(4), 486-511.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1), 1-9.

DiStefano, T. M., Croteau, J. M., Anderson, M. Z., Kampa-Kokesch, S., & Bullard, S. (2000). Experiences of being heterosexual allies to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A qualitative explor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1), 68-80.

Doty, N. D., Willoughby, B. L. B., Lindahl, K. M., & Malik, N. M. (2010). Sexuality-related social

support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0), 1134-1147.

Duhigg, J. M., Rostosky, S. S., Gray, B. E., & Wimsatt, M. K. (2010). Development of heterosexuals into sexual¯minority allies: A qualitative exploration.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7*(1), 2-14.

Dyar, C., Feinstein, B. A., & London, B. (2016). Predictors of LGBT activism among heterosexual al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72*(2), 266-289.

Ekehammar, B., & Akrami, N. (2003).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prejudice: A variable- and a person-centred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6), 449-464.

Ekehammar, B., Akrami, N., Gylje, M., & Zakrisson, I. (2004). What matters most to prejudice: Big five personali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r right¯wing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6), 463-482.

Evans, N. J., & Wall, V. A. (1991). *Beyond tolerance: Gays, lesbians and bisexuals on campus*. American College Personnel Association.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Faderman, L. (1991). *Odd girls and twilight lovers: A history of lesbian lif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Field, A. (2005).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2nd ed.). Sage.

Fingerhut, A. W. (2011). Straight allies: What predicts heterosexuals' alliance with the LGBT commun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9), 2230-2248.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Allyn & Bacon.

Ghaziani, A., Taylor, V., & Stone, A. (2016). Cycles of sameness and difference in LGBT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1), 165-183.

Goldstein, S. B., & Davis, D. S. (2010). Heterosexual allies: A descriptive profile.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3*(4), 478-494.

Grundmann, O., Smith, R. W., & Kennedy, J. D. (2020). The pharmacist as an LGBTQ ally.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84*(7), 7835.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8).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Pearson Prentice Hall.

Hair, J. F. Jr.,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A Global Perspective*. Kennesaw State University.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5*(4), 451-477.

Herek, G. M. (2000). The psychology of sexual prejudi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19-22.

Herek, G. M., Capitanio, J. P., & Widaman, K. F. (2003). Stigma, social risk, and health policy: Public attitudes toward HIV surveillance polici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illness. *Health Psychology, 22*(5), 533-540.

Ho, I. K., Zhou, W., & Jussim, L. (2023). Empowering workplace allies for LGBT employees: A scoping review.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42*(6), 845-866.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i, P. (2007). Being an ally: A qualitative study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affirmative counselor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Ji, P., Du Bois, S. N., & Finnessy, P. (2009). Development of LGBT ally identity: A qualitative exploration.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3*(3-4), 168-193.

Jones, K. N., Brewster, M. E., & Jones, J. A. (2014). The creation and validation of the LGBT Ally Identity Measur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2), 181-195.

Jones, K. N., & Brewster, M. E. (2017). From awareness to action: Examining predictors of LGBT activism for heterosexual peopl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6), 680-689.

Kanamori, Y., Cornelius‐White, J. H. D., Pegors, T. K., Daniel, T., & Hulgus, J.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6*(5), 1503-1515.

Kaiser, H. F., & Rice, J. (1974). Little Jiffy, Mark IV.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1), 111-117.

Kite, M. E., & Whitley, B. E. Jr. (1996).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ersons, behaviors, and civil righ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4), 336-353.

Kline, P. (2015). *A handbook of test construction (Psychology Revivals): Introduction to psychometric design*. Routledge.

Ledesma, R. D., & Valero‐Mora, P. (2007).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to retain in EFA: An easy‐to‐use computer program for carrying out parallel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2*(2), 1-11.

Levesque, A. (2019). "I've always wanted a gay family member!": Straight ally girls and gender inequality in a high school gay-straight alliance. *Qualitative Sociology, 42*(2), 205-225.

Lewis, D. C., Flores, A. R., Haider‐Markel, D. P., Miller, P. R., Tadlock, B. L., & Taylor, J. K. (2017). Degrees of acceptance: Variation in public attitudes toward segments of the LGBT communit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0*(4), 861-875.

McEwing, E. (2020). Delivering culturally competent care to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population: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94*, 104573.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Montgomery, K., & Stewart, A. J. (2012). Generation, gender, and resistance to heteronormativit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9*(4), 325-336.

Mohr, J. J., & Rochlen, A. B. (1999). Measuring 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in diverse popul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53-369.

Moore, Stephanie Ann. (2021). "Understanding Factors Which Contribute to LGBT Ally Identity Development". *Walden Dissertations and Doctoral Studies*. 10258.

Perales, F. (2020). Improving the wellbeing of LGBTQ employees: Do diversity training and ally networks make a difference?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51*(6), 569-588.

Poynter, K. J., & Tubbs, N. J. (2008). Safe zones: Creating LGBT safe‐space ally programs. *Journal of LGBT Youth, 5*(1), 121-132.

Raju, D., Beck, L., Azuero, A., Azuero, C., Vance, D., & Allen, R. (2019). A comprehensive psychometric examination of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for heterosexuals (LGB-KASH). *Journal of Homosexuality, 66*(8), 1104-1125.

Ratcliff, J. J., Lassiter, G. D., Markman, K. D., & Snyder, C. J. (2006).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The role of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0), 1325-1338.

Rostosky, S. S., Black, W. W., Riggle, E. D., & Rosenkrantz, D. E. (2015). Positive aspects of being a heterosexual ally to LGBT peopl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5*(4), 331-338.

Rubin, A., & Babbie, E. (Eds.).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Thomson.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13).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6th ed.). Pearson.

Warren, M. A., & Bordoloi, S. D. (2023). Going beyond good colleagues: Men's and women's perspectives on allyship behaviors toward women faculty in male-dominated disciplines in academia.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16*(6), 745-758.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Wright, A. J., & Wegner, R. T. (2012). 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and their impact on LGB individuals: A measure validity study.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6*(1), 34-54.

Worthen, M. G. F. (2011). College students' support for same-sex marriag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s, gender, religiosity, and intergroup contact. *Sociological Inquiry, 81*(2), 179-206.

Worthen, M. G., & Lanza, S. T. (2023). LGBT individuals' perceptions of straight allyship and its impact on well-being.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0*(1), 1-12.

Worthington, R. L., Dillon, F. R., & Becker-Schutte, A. M. (200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for heterosexuals (LGB-KAS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04-115.

Yu, H., Flores, D. D., Bonett, S., & Bauermeister, J. A. (2023). LGBTQ+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for health professionals: A systematic review. *BMC Medical Education, 23*(1), 558-641.

1 차원고접수 : 2025. 09. 11.
수정원고접수 : 2025. 12. 02.
최종게재결정 : 2026. 01. 22.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79-109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1

Regular Articl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GBT Ally Identity Measure (K-AIM)*

Hyun Ko[1)**†] Hanseok Kim[2)**†] Moojin Lee[3)**†] Seoyoung Lee[4)**†]

[1)]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d the lack of a valid and comprehensive instrument in South Korea for measuring the identity of allies - non-LGBTQ+ individuals who actively support and practice solidarity with LGBTQ+ people. To fill this gap, the present study aimed to adapt the Ally Identity Measure(AIM) into Korean and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tudy 1, the original scale was translated and back-translated, followed b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examine the cultural suitability of the adapted version. In Study 2,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and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evalu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AIM(K-AIM) consists of 20 items with three factors: Knowledge-Skill, Openness-Support, and Perceived Oppression. The three-factor model showed good fit indices(CFI = .959, TLI = .952, RMSEA = .054) and internal consistency(α = .78 - .92), as well as satisfactory levels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K-AIM goes beyond assessing merely affirmative attitudes toward LGBTQ+ individuals; it can serve as a robust tool for evaluating active support, advocacy, and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It has potential applications in LGBTQ+ ally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ally training programs, and the evaluation of their effectiveness.

Key words : LGBTQ+, Ally Identity, LGBT Ally Identity Measure, Social Justice, LGBT-Affirmative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22 Ally Activity Support Program of the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 All authors contributed equally as first authors, and the authors' names are presented in Korean alphabetical order.
†Co-corresponding authors: Hyun Ko, Hanseok Kim, Moojin Lee, Seoyoung Lee (E-mail: theally.research@gmail.com)

부 록

부록 1. 전체 요인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N = 4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렴 타당도	K-AIM	1. 지식-기술	-													
		2. 개방-지지	.78***	-												
		3. 억압 인지	.38***	.47***	-											
		4. 인간관계	.43***	.56***	.44***	-										
	K-TABS	5. 고정관념	.38***	.50***	.49***	.68***	-									
		6. 인권의식	.36***	.51***	.49***	.74***	.69***	-								
		7. 혐오	-.34***	-.53***	-.41***	-.65***	-.57***	-.61***	-							
	KASH	8. LGB 지식	.82***	.78***	.45***	.51***	.45***	.45***	-.42***	-						
		9. LGB 시민권	.41***	.57***	.50***	.65***	.63***	.72***	-.70***	.53***	-					
		10. 종교적 갈등	-.00***	-.12***	-.03***	-.13***	-.15***	-.10***	.25***	-.11***	-.23***	-				
		11. 내재화된 인정	.62***	.68***	.44***	.53***	.46***	.46***	-.46***	.67***	.60***	-.13***	-			
변별 타당도	BPI-SF	12. 우호성	.09*	.14***	.18***	.24***	.31***	.27***	-.25***	.10**	.22***	.06***	.04	-		
		13. 개방성	.30***	.36***	.14***	.26***	.17***	.22***	-.22***	.28***	.24***	-.08***	.26***	.14**	-	
	SDS-24	14. 사회적 바람직성	-.14***	-.10***	.01***	-.09***	-.0.1*	-.02***	.04***	-.12***	-.00***	-.02***	.02**	-.34***	-.17***	-

주 1. K-AIM = 한국판 성소수자 앨라이 정체성 척도, K-TABS =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 LGB-KASH = LGB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for Heterosexuals, BFI-SF = Big Five Inventory-Short Form, SDS-24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주 2. $^{*}p < .05$. $^{**}p < .01$. $^{***}p < .001$